

IX. 가야인의 생활

1. 산업의 발달
2. 종교와 풍속

IX. 가야인의 생활

1. 산업의 발달

산업이란 생산을 영위하는 일로 자연물에 인공을 가하여 그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고 또한 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형태를 바꾸거나 혹은 이전하는 경제적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농업·수산업·목축업·임업·광업·공업·상업 및 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발전단계상에서 볼 때 가야사회를 이처럼 세분하여 그 산업의 양상을 밝히기에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수공업 분야와 이러한 산업발달에 수반되는 교역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상 가야사회는 경상남북도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小國의 통칭으로 이해되며, 좁은 의미로서는 金海의 金官加耶, 高靈의 大加耶로 대표되는 개념이다. 이는 철기문화의 확산에 의한 이 지역에서의 弁韓소국들의 사회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소국간의 통합 결과 2·3세기대에 이르면 洛東江유역 일대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여 소국연맹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대체로 前期 加耶聯盟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친 한반도의 정세는 전기 가야연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5세기 후반에 이르면 그 정치세력의 중심지는 내륙의 고령지방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後期 加耶聯盟으로 이해되는 시기인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역사적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가야의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전기 가야의 산업

전기 가야시대 산업으로는 稻作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남해안 일대의 풍요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한 어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한 철기생산 및 토기·길쌈¹⁾ 등의 수공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古代米 출토 유적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부분이 동일 유구나 유적 넓게는 동일지역에서 다른 발작물과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쌀만 검출된 扶餘 松菊里,²⁾ 慶州 각지의 고분, 金海 會峴里, 三千浦 勒島 유적 등도 인접지역에서 발작물이 경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즉 부여 송국리 유적의 경우 출토된 礪石의 존재로 보아 조[粟] 등의 발작물이, 김해 회현리 유적의 경우는 인접한 府院洞 유적³⁾에서 쌀과 보리[大小麥], 콩과 팥[大小豆], 조·밀 등이 함께 출토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⁴⁾ 이와 같은 현상은 한반도의 선사·고대농업이 밭농사가 우세하였거나 밭농사와 논농사가 혼합된 형태로 경작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반도의 도작농업⁶⁾이 靑銅器시대에 이미 청동기·石器·土器·墓制 등의 복합문화체로서 남부지방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과 이 시기 김해지역에서의 철기문화 발달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 도달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육지에서 떨어진 늪도와 같은 섬은 논농사가 부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출토된 쌀은 교역 대상으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⁷⁾

1)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弁辰傳에 의하면 “蠶桑을 익히 알고 織布를 짤 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1, 1981).

3) 東亞大博物館, 《金海府院洞遺蹟》(고적조사보고 5, 1981)

4) 郭鍾喆, 〈한국과 일본의 고대 농업기술〉(《韓國古代史論叢》4,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65쪽.

5) 이 점은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弁辰傳의 “土地가 肥美하여 五穀과 稻를 심기에 좋다”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한반도의 도작농업에 대해서는 沈奉謹, 〈韓國 先史時代 稻作農耕〉(《韓國考古學報》27, 1991), 5~61쪽 참조.

7) 이 경우 陸稻의 재배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형조건을 고려해 볼 때 반입의 가

다시 말해 쌀이 섬 주민의 식량으로서의 역할보다 상품 내지 전략물자로서의 상업적 의미를 가진 교역대상물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⁸⁾ 이것은 해당 출토 유적이 해안평야의 砂原이나 離島・海岸 砂州 등에 입지한다는 점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의 해안부 도작 유적의 입지조건과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의 도작 유적을 경영한 집단의 산업활동은 농업과 어업이 혼합된 경제구조로서 양자의 생산력이 중복되거나 어업에 보다 많이 치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해안지역을 무대로 한 당시의 생산・교역체계를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전기가야의 어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활동에는 어로・양식・수산제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어패류를 포획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을 것이다.⁹⁾ 먼저 문헌에서 전기 가야시대 타지역에서 보이는 어업활동에 관한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어로(①) 외에 해조류의 채취(②), 해서동물의 포획(③), 건어물・소금 생산활동(④・⑤) 등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 ① 마침 浦邊에 한 노파가 있어 이름을 阿珍義先이라 하니 赫居王의 고기잡이 할미였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4 脫解).
- ② 하루는 延鳥가 바다에 가서 海藻를 따고 있는 중 홀연히 한 바위가 있어 신고 日本에 가버렸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延鳥郎 細鳥女).
- ③ 그 바다에서는 斑魚皮가 생산되었다(《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傳, 濊).
- ④ 또 (魏의 顯祖가) 詔書로 말하기를 “...바친 바의 錦布海物은 비록 다 이르지 않았으나 卿의 至心이 명백하므로 지금 雜物을 별도로 주는 것이다” 하다(《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蓋鹵王 18년).

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 8) 이와 같이 해상무역을 하는 상인이나 해양 어민들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 상업적이며 비정착적인 형태의 도작을 ‘Gambler의 稻作’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高谷好一《コメをどう捉えるか》,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90, 106~157쪽).
- 9) 그렇다고 하여 당시의 어로기술이 미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도의 포획기술을 요하는 捕鯨業이 이미 전사시대에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蔚州 盤龜臺의 巖刻畫가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高句麗에) 貂布와 魚鹽・海中植物을 千里나 漚어지고 漚다(《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傳, 東沃沮).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가야사회도 이와 동등한 어업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해산물이 자급자족의 경제에서 벗어나 대외교역물로서 상품화되었다는 점(④・⑤)이다. 아울러 이는 해산물을 가공하여 보존하는 기술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볼 때 당시 김해 중심의 해안을 생활 근거지로 한 경제활동에 대한 그 일면의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패총이다. 김해를 중심으로 한 패총의 입지와 조개류[貝類] 조성을 비교해 보면, 전기 가야시대 이전의 유적들은 김해지역에 해수가 침입한 이후에 해수면의 변동으로 인하여 外海와 內灣에 분포하여 그 위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 가야시기가 되면 패총의 위치는 대체로 그 구별이 없어진다. 이 점은 당시 이 지역의 어업활동이 세분화됨에 따라 생산 담당계층이 분리・분화되어 단순한 어로활동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구조로 바뀌어 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 가야시대보다 앞선 시기에는 패총에 묻혀진 패류의 종류가 패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는 패류를 포획하는 집단의 활동이 패총을 형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기 가야시대에 이르면 이러한 양상은 약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새로이 灣의 안쪽에 형성된 회현리・부원동 패총의 경우, 그 위치가 만의 안쪽인데도 불구하고 출토된 패류의 종류에는 외해에서 서식하고 있던 패류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사실은 이들 패총을 형성한 집단이 어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외해계와 내만계로 분리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외해계 어업은 잠수어

10) 양 패총은 그 입지 때문에 內灣의 굴류・백합・바지락 등의 潮間帶群集이 주종을 형성하지만 패류 가운데에는 外海에서 灣口部 사이에 서식하는 패류가 적지 않게 검출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참전복・시볼트전복 등의 전복류와 긴빨고둥・눈알고둥・명주고둥・테두리고둥・보말고둥 등의 고둥류 및 홍합・대복・조선백합・국자가리비 등이다.

법¹¹⁾에 의한 패류·해조 등의 포획이나 해서동물의 포획과 같은 독특한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만계의 어로활동과 구분된다.¹²⁾

그리고 당시의 대외 교역활동의 담당 집단이 이들 외해계 어민들이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의 것으로서 김해지역에 보이는 패총의 지리적 입지가 단순히 어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패총과 분묘 등에서 출토되는 외해계 반입품은 당시의 대외교역활동이 加耶諸國 집단간의 교역범위를 벗어나 중국·일본과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수공업으로서의 철 문제이다. 철은 고대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¹³⁾을 한 것으로 낙동강 하류의 김해지역은 초기 철기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의 하나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역의 17개 소의 鐵鑛床 가운데 13개 소가 김해 부근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또한 김해군 상동면에서 야철지가 확인¹⁵⁾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나라에는 鐵이 나는데 韓·濊·倭가 모두 와서 이것을 취해 갔다. 모든 賣買에는 모두 鐵을 사용하는데 中國에서 錢을 사용함과 같다. 또한 二郡에 供給한다(《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弁辰).

철을 매개로 한 전기 가야의 교역활동을 문헌과 유물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면, 낙랑지역이 중국과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하고 있었다면 전기 가야의 김해지방은 낙랑의 선진문물을 수입하여서 낙동강 수로를 통하여 경상 내륙지

11) 이러한 잠수어업에 대해서는 “또 한 바다를 건너 千餘里를 가면 末盧國에 이른다. …고기와 전복잡기를 즐겨 물이 깊고 얕음이 없이 모두 물밑에 가라앉아 이를 취한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倭)라는 기록이 참고된다.

12) 郭鍾喆, 〈洛東江 河口 金海地域의 環境과 漁撈文化〉(《伽倻文化研究》2, 釜山女大, 1991), 70쪽.

13) 李龍範, 〈高句麗의 成長과 鐵〉(《白山學報》1, 1966).

14) 李南珪, 〈韓國初期 鐵器文化의 一考察〉(《韓國考古學報》13, 1982), 42쪽.

15) 安春培, 〈伽倻社會의 形成過程研究〉(《伽倻文化研究》창간호, 1990), 60~61쪽.

방의 가야 여러 소국이나 신라 등지에다 팔아서 그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對馬島와 壹岐島를 거쳐 倭國에도 선진문물을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중개무역의 이익을 축적하는 중개기지로서 번성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최근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중국거울·일본계 청동기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전기 가야의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산업양상은 낙랑의 소멸에 따른 낙랑과의 교역단절, 이어 전개되는 한반도내에서의 일련의 정세변화로 그 중심지가 고령을 중심으로 한 경상 내륙 산간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2) 후기 가야시기

4세기에 들어와 한반도 북부에서 한 차례의 정치적 파동이 일어나고 그 여파는 한반도 남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4세기 초의 고구려에 의한 樂浪郡·帶方郡의 점령은 전기 가야에 있어 해상교역 기지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친 고구려의 가야지역 정벌로 인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처럼 4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의 일련의 정치적 파동은 가야사회에 몇가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전기 가야의 중심이었던 김해를 비롯한 경남 해안지역은 큰 타격을 입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되었으며, 그 세력의 일부는 주변의 가야지역으로 이동하여 후기 가야사회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아진다. 이에 반해 당시 가야지역내에서도 후진지역이었던 고령을 중심으로 한 거창·함양 등지의 내륙 산간지역은 전화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토착세력을 기반으로 착실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가야지역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신라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였던 성주·창녕 등지의 가야세력은 신라의 세력권 아래로 점차 잠식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고 추측된다.

당시의 경상 내륙 산간지방은 5세기 초의 전화도 입지 않았고 게다가 최상의 농업 입지조건을 안정적으로 영유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 철기·토기

등의 선진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유이민들이 들어오면서 농경사회 전체의 발전속도가 그 이전보다 가속화되어 나갔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¹⁶⁾

경상 내륙 산간지방에서의 농경문화 전통이 경상 해안지방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령 良田洞·山淸 江樓里·晉州 大坪里 유적에서 보이는 범씨자국의 무문토기편에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김해지방은 삼각주 평야지대로 농경에 적합한 지대로 이용되고 있지만, 낙동강의 대규모 제방이 구축되기 이전의 김해지역은 저습지 혹은 해안지대로서 거의 해마다 홍수피해를 입어 농경에 좋지 못한 환경이었던 것이다.¹⁷⁾ 따라서 농업은 오히려 내륙지방에서 더욱더 활발하였으리라고 보아진다. 내륙 산간지방은 비록 김해지역과 같이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의 입지는 아니지만 아직 저수시설과 수리제어기술이 미흡하여 산간의 계류를 이용한 관개시설 방식의 농경¹⁸⁾을 하였던 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곳이 오히려 최상의 안정적인 농업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철산지의 확보라는 점인데, 비록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가야지역내의 鐵場으로는 《世宗實錄地理志》에 陝川郡 冶盧縣 心妙里의 철장과 山陰縣 馬淵洞山·三嘉縣 毛臺亦里 檻頂山의 철장 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철산업이 발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각 군현의 歲貢조를 참고해 보아도 야로현의 철장은 조선 초기에 正鐵 9,500근의 세공을 바쳤을 정도로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었던 곳으로 가야지역내에서 다른 어느 철산지와도 비교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후기 가야는 이를 장악한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沈奉謹〉

16) 金泰植, 〈後期加耶諸國의 성장기반 고찰〉(《釜山史學》 11, 1986), 15쪽.

17) 潘鏞夫·金元經, 〈金海地域의 地形과 聚落〉(《伽倻文化研究》 2, 1991), 7쪽.

18)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韓國上古史學報》 8, 1991), 52쪽.

2. 종교와 풍속

종교와 신앙이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구별하여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용어 중의 하나이다.¹⁾ 협의의 의미에서 종교란 불교 또는 기독교와 같이 내세관을 가지며 교리·교단 등을 갖춘 것으로 이해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신앙도 종교에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기 전단계의 시기에 있어서는 양자의 구별은 더욱 불명확하며 고대사상과도 혼동²⁾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집단의 생활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풍속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³⁾

일반적으로 가야시대는 문화적·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변 삼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집단내에 존재하였던 이질성 즉 상고시대 이래 이어져 온 샤머니즘·토테미즘·애니미즘 등의 종교적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정돈되면서 세계성을 가진 외래종교인 유교·불교·도교 등의 사상을 받아들여 독자 문화를 이루어 가는 시기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여기서는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자료에 보이는 가야시대의 종교·신앙과 풍속을 중심⁴⁾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사전에서 종교와 신앙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宗教란 신이나 초인간적인 존재의 능력을 믿고 숭배하여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정신문화의 한 갈래라 하고, 신앙이란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인간성을 완전하신 하느님의 인격에 접근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한다(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2) 예를 들면 태양숭배사상·산신숭배사상·조상숭배사상 등과도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상이란 신앙이 종교의 형태로 체계화되기 전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예를 들면 금기시한다든가 신성시하는 행위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4) 본고에서는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유교·불교·도교가 고대국가에 수용되기 이전의 종교는 신앙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유교는 현실적 윤리도덕의 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종교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유교경전인 《詩經》·《書經》을 비롯한 五經에 초인간적·초자연적 존재인 「上帝」와 「天」 등이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고, 종교의식인 祭儀가 존재하므로 광의의 의미에서 종교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1) 문헌에 보이는 가야의 종교

(1) 불 교

고대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문헌이 남아있지 않는 국가가 가야이다. 따라서 불교전래 사실도 주변의 삼국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데 비해 보이지 않고 있다. 고대삼국 가운데 처음 불교가 공인된 국가는 고구려로, 제10대 小獸林王 2년(372)에 前秦의 順道가 불교를 전하였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12년 뒤인 제15대 枕流王 원년(384)에 東晉으로부터 인도승 摩羅難陀(Malananta)가 들어와서 불교를 전하였다. 신라는 그 후인 訥祗麻立干代(417~458)에 고구려를 거쳐온 墨胡子(阿道)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널리 퍼지지 못하였고 法興王 때 異次頓의 순교와 더불어 공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야의 불교전래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미비하여 그 전반적인 실상은 알 수 없다. 다만 문헌기록으로 《삼국유사》와 여기에 수록된 《駕落國記》에 다음과 같은 불교관계 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야에도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전래 연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 ① 왕이 가로되 내가 서울을 정하고자 한다...이 땅이 蓼葉과 같이 협소하나(地勢가) 秀異하여 가히 16羅漢의 살 곳이 될 뿐 아니라 하물며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는 7聖이 살 곳으로 적합한 곳이다(《駕落國記》).
- ② 姦은 본래 阿踰陀國의 공주인데 姓은 許씨이고 이름은 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駕落國記》).
- ③ 金官 虎溪寺의 婆娑石塔은 옛날 이 고을이 金官國으로 되었을 때 世祖 首露王의 妃 許皇后 黃玉이 東漢 建武 24년 甲申에 西域 阿踰陀國에서 신고 온 것이다(《三國遺事》 권 3, 塔像 4, 金官城 婆娑石塔).
- ④ 銓知王 혹은 金銓王이니 元嘉 28년에 즉위하여 이듬해에 世祖와 許黃玉 왕후를 위하여 처음에 세조와 合御하던 곳에 명복을 빌려고 王后寺라는 절을 짓고 논 10결을 바쳐 충당케 하였다(《駕落國記》).

사료 ①의 16나한이라든지 7성⁵⁾이 살 곳이라 한 점은 금관가야의 도읍지

5) 16羅漢과 7聖에 대해서는 '16나한은 부처님의 大弟子들이고 7성은 곧 7佛(과

가 불교와 관련이 있다는 설화이고, ②·③에 의하면 수로왕 妃인 허황옥은 불교 발생지인 인도의 일국인 아유타국 출신이라 하여 역시 불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반영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금관 가야의 건국이 불교와 관계성을 가진다고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변 삼국에의 불교전래가 4·5세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설화는 불교가 들어온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료 ④에 보이는 王后寺의 창건을 元嘉 29년(452)이라고 기록한 기사는 어느 정도 역사성을 가진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⁶⁾

그러나 가야에의 불교전래가 백제를 통해 전래되었는지 혹은 설화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해로를 통해 중국 또는 인도로부터 들어왔는지 하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⁷⁾ 아울러 4면이 각이 진 오층석탑인 婆娑石塔은 재질면에 있어 이 지방에서 구할 수 없는 석질이란 점에서 고고학적·미술사적으로도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후대의 사료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삼국사기》地理志를 주석하는 형식으로 신라 말의 학자인 崔致遠이 찬한 〈釋利貞傳〉과 〈釋順應傳〉의 일문을 인용하고 있다.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곧 천신 夷毗訶之에 응감한 바 되어, 대가야왕 惱室朱日과 금관국왕 惱室靑逸 두 사람을 낳았다. 대가야국의 月光太子는 正見의 10대손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 144, 高靈縣).

여기서 가야산신을 정견모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교적인 색채로 윤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견이란 불교의 八正道⁸⁾ 가운데 처음의 것으

거 6불에 釋迦를 더하여 7불)을 말함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丁仲煥, 《加羅史草》, 釜山大, 1962, 65쪽). 또는 隨信行 등 불교의 7성을 의미한다고 한다(李丙燾, 《譯註 三國遺事》, 廣曹出版社, 1981, 286쪽).

6) 이에 대해 金煥泰는 銓至王 2년(452)을 金官加耶에 불교가 初傳된 시기라고 보았다(金煥泰, 〈駕洛佛教의 傳來와 그 展開〉, 《佛敎學報》 27, 1991).

7) 金煥泰는 금관가야에 전래된 불교는 백제나 중국보다 인도 쪽에서 들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가야의 불교가 신라불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고 있다(金煥泰, 위의 글, 46~47쪽).

8) 八正道란 正見·正思·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을 말한다.

로 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뜻이다.

위 설화의 내용은 가락국의 시조를 하늘에서 내려 온 난생의 사람이라 비유한 데 반해, 대가야의 시조는 천신과 산신의 감응에 의해 탄생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관가야 뿐만이 아니라 대가야에도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반영하는 것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 교

유교는 중국의 상고신앙을 바탕으로 초월적·절대적 존재로서의 上帝 혹은 天을 중시하는 사상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현실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¹⁰⁾ 그러므로 유교는 윤리도덕의 규범을 강조함과 동시에 종교·철학·정치·교육·사상 등의 학문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교는 인간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유교를 민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德治主義와 王道政治를 강조하는 정치사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가야를 비롯한 고대 삼국도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국의 고유문화를 성립시켜 나갔다고 보아진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를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시기라고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유교가 보다 먼저 전래되어 고대문화의 일부분을 형성하였다. 이는 유교전래의 하한을 고구려 小獸林王 2년(372)의 太學 설립의 기록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에서도 近肖古王代(346~375)에 박사 高興에 의해 《書記》가 편찬되었다는 기록에서 유교가 전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 眞興王 6년(545)에 이르러 《國史》가 편찬되었던 점과 교육기관인 國學이 神文王 2년(682)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유교가 상당히 늦게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訥祗麻立干代에 박

9) 대가야의 불교 전래 경로에 대해서 금관가야로부터 유입되었다고 보는 설(金煥泰, 앞의 글)과 백제로부터 유입되었다고 보는 설(金福順, <大加耶의 불교>, 《加耶史研究》, 1995)이 있다. 한편 南齊로부터 유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도 있다(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10) 상고신앙으로서의 유교는 공자에 이르러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 공자는 인간의 의지를 넘은 존재로서의 「天」 또는 「天命」에 대한 의경심을 표시하였으나, 이는 주체적으로 각성된 인간성을 통하여 심화되는 세계로 보았던 것이다.

제상이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던 王弟 卜好를 데려오기 위해 《春秋左氏傳》과 《詩經》의 문구를 인용하여 고구려왕을 설복시켰던 점¹¹⁾을 생각한다면 이미 유교의 오경사상이 전래되어 지배층에 널리 입혀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가야의 유교사상을 엿볼 수 있는 서술 부분¹²⁾을 《가락국기》에서 추출하여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假宮을 짓게 하여 入御하였으나 질박하고 검소하고자 하여 茅茨(지붕에 덮은 띠)를 자르지 않고 흙 계단은 三尺이었다.
- ② 宮闕과 屋舍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건축하였다.
- ③ 王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나를 명하여 즉위케 하여 장차 중국을 편안히 하고 下民을 안도케 함이니 감히 天命을 어기어 位를 주지 못할 것이고 또한 우리 나라의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 ④ 그 아래 官僚는 周의 規例와 漢의 제도로써 정하니 이것이 革古鼎新하고 設官分職하는 도리였다.
- ⑤ 이에 나라와 집안이 질서있게 되고 人民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니 그 教化는 엄숙치 아니하여도 위엄이 서고 그 정치는 엄하지 아니하여도 다스려졌다.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야시대에도 정치사상으로서 유교가 전래되었다는 점이다. 즉 현실 정치를 담당한 위정자의 자질에 필요한 왕도 정치와 덕치주의(①·⑤), 추구하는 정치의 근본인 민본주의(②), 도덕성과 역사의식의 근거인 天命思想(③), 그리고 유교적 국가제도의 정비 등의 요소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교가 불교보다 앞서 그리고 별다른 마찰없이 가야를 비롯한 고대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유교사상과 한국 고대의 사상이 모두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현세를 중시하는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11) 《三國史記》 권 45, 列傳 5, 朴堤上條 참조.

12) 《駕落國記》의 내용에는 후대의 수식이 더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그러나 금관가야가 일찍부터 낙랑과 빈번한 통교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문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유교사상도 동시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사료로 이용하였다.

(3) 도 교

道敎란 민간신앙인 神仙思想을 기반으로 不老長生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현세의 吉福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도교는 자연발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한국에서도 도교를 수용할 수 있는 토착적인 신앙적 기반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즉 檀君神話에 보이는 산악숭배신앙과 신전설 및 각종 方術¹³⁾에 관한 기록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먼저 삼국에의 도교 전래를 살펴보면, 먼저 고구려의 경우 《삼국유사》에 기록이 보이고 있다.

高(句)麗本記에 말하기를 麗末인 武德·貞觀¹⁴⁾년간에 國人이 다투어 五斗米敎¹⁵⁾를 신봉하였다. 唐 高祖가 이를 듣고 道士를 시켜 天尊像을 보내고 道德經을 강연케 하였다. 왕이 국인과 함께 聽講하였는데 즉 榮留王 즉위 7년인 무덕 7년 甲申(624)이었다(《三國遺事》 권3, 興法 3, 寶藏奉老 普德移庵).

이 기사에 의하면 고구려에 도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은 영류왕 7년(624)이지만 원시도교의 하나인 오두미교의 전래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간다고 볼 수 있다.¹⁶⁾ 이후 고구려에서는 寶藏王 2년(643) 淵蓋蘇文의 건의에 의해 재차 도교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정략적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민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백제의 경우 문헌상 도교전래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서 종교로서의 도교는 형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사를 참고로 하여 볼 때 백제에도 도교가 전해져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¹⁷⁾

13) 방술이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과 기술을 말한다.

14) 武德은 唐 高祖의 연호(618~626)이며, 貞觀은 唐 太宗의 연호(627~649)이다.

15) 「五斗米敎」란 입교자에게 쌀을 닛말씩 바치게 한 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後漢 桓·靈(147~188)帝 때 張陵으로부터 시작된 도교의 한 祖型이다.

16) 오두미교의 전래 상한에 관한 기록은 “중국이 크게 어지러워 漢人들이 난을 피해 내투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三國史記》 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9년)는 기사일 것이다.

17) 백제는 369년경에 이미 도교에 관한 서적이 전래되어 지배층 사이에 윤희지고 있었으며(《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1, 근구수왕) 또한 백제가 도교적 잡술

신라에서도 고구려와 같은 공식적인 도교의 전래를 전하는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眞平王 9년(587)에 大世·仇柒 같은 이가 신선의 도를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갔다는 기록¹⁸⁾이 있고 도교와 관련있는 방술을 구사하는 인물¹⁹⁾에 관한 기사가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신라에도 도교는 전래되어 있었다²⁰⁾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가야에 있어서의 도교전래도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가락국기》에 수로왕이 탈해와 왕위를 다툰 때 독수리나 새매 등으로 둔갑하였다는 도교적 잡술에 관한 내용이 보이고 있으며, 수로왕이 157세로 향수하였다는 설화는 신선설과 상통하는 것으로 도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도교와 관련되어 가야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招賢臺 …俗에 전하기를 駕洛國 居登王이 七點山 崑始仙人을 초청하니, 崑始는 배를 타고 거문고를 가져왔다. 서로 더불어 기뻐하였으므로 그대로 이름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 32, 金海都護府 古跡).

이와 같이 선인과 관련이 있는 지명에 관한 기록을 남길 만큼 가야사회에도 도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가야의 종교를 살펴보았다. 삼국사회에 있어 불교가 고대종교로서 수용되었는 데 비해 유교는 정치사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되었고, 도교는 고대신앙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한국 고대사회에 정착하여 각국의

인 遁甲方術의 책을 일본에 전래시켰던 점(《日本書紀》권 22, 推古天皇 10년)과, 백제 武王이 연못에 섬을 만들어 三神山の 하나인 方丈山에 비유한 점(《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35년)으로 볼 때 백제에서는 일찍부터 도교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9년.

19) 金庾信을 들 수 있는데,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의하면 그는 7曜의 정기를 타고 났기 때문에 7星의 무늬가 있었다(《三國遺事》권 1, 紀異 2, 金庾信)고 하고, 17세에는 어떤 노인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았다(《三國史記》권 41, 列傳 1, 金庾信 上)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도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또한 그의 증손인 金巖은 중국에서 도교적 잡술을 배워 와서 메뚜기의 재해를 물리쳤다고 한다(《三國史記》권 41, 列傳 3, 金庾信 下).

20) 그 외에도 仙桃山 神母를 地仙이라 했다가, 花郎을 國仙이라 하고 화랑의 역사서를 仙史라 하였던 점에서도 추측 가능하다.

고유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야사회도 이러한 범주내에서 고유신앙과 사상체계를 바탕으로 불교·유교·도교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의 문화를 형성하여 나갔다고 보아진다.

2) 가야의 신앙과 풍속

외래종교인 불교·유교·도교가 전래되기 이전, 가야에는 종교로 체계화되지 못한 여러 민간신앙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의 신앙은 샤머니즘·토테미즘·애니미즘의 원시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보아진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문헌에 보이는 몇 가지만 추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도신앙

삼국형성 이전 삼한사회에서는 마을단위의 부락제가 행하여져 왔는데, 연맹국가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祭天儀禮²¹⁾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제의가 행해지던 곳이 蘇塗이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別邑이 있어 그것을 蘇塗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韓).

그리고 귀신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天君이라 하고, 그 지역을 신성시하여 범죄자라도 도망쳐 들어가면 잡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소도신앙은 음력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부락제의 유습으로, 이것이 발전하여 귀신을 제사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5월과 10월에 파종이 끝나거나 추수가 끝나면 음주하면서 노래부르고 춤추는 행위 자체가 제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의식은 제천과 귀신이 분리되지 않은 채 행하여졌기 때문에 소도신앙에서 숭상된 대상은 天神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귀신으로

21) 소도에서 행하여진 의례를 제천의례라고 볼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부락제에서 발전된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불려진 다양한 신이었던 것이다.²²⁾

한편 《가락국기》에도 수로왕을 하늘로부터 맞아들이는 의례가 보인다.

또 말하기를 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
이 되라 하였으므로 이곳에 일부러 내려 왔으니 너희는 마땅히 峯上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하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어 먹으리라”하고
舞蹈하면, 대왕을 맞이하여 歡喜勇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화는 가야에서도 하늘을 받드는 신앙풍습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2) 태양신앙

태양은 고대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조건의 하나였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 「태양숭배신앙」은 자연
숭배의 측면만이 아니라 고대국가의 시조전설과 연관되어서 「조상숭배사상」
으로도 발전하였으며, 또한 卵生說話와 결부되어 전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九千 등이 그 말과 같이 모두 기뻐서 歌舞하다가 얼마되지 아니하여 쳐다보
니 紫色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폭에 금합
이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해와 같은 둥근 여섯 개의 황금 알이 있었다.…여섯
알이 화하여 童子가 되었는데, 용모가 매우 깨끗하므로 상에 앉히고 여럿이 拜
賀하고 극진히 위하였다.…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諱를 首露 혹은 首陵이라
하고 나라를 大駕落 또는 伽耶國이라 일컬었다. 곧 6가야의 하나이며 나머지 5
인은 각각 가서 5가야의 主가 되었다(《駕洛國記》).

이와 같이 태양숭배신앙은 난생설화와 결합하여서 가야의 6가야의 시조
개국설화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시조설화로는 이 가야의
설화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의 東明王, 신라의 朴赫居世·金闕智·昔脫解 설화
등도 있다.

22) 이와 같은 풍습은 당시의 고구려와 부여·예 등의 사회에도 남아 있었는데, 제
사대상의 신으로는 천신 외에도 遂神(高句麗)·호랑이(東濊) 등이 있었다.

(3) 산악신앙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나라는 지형적 영향에 의해 생활의 터전을 산에 의지하여 온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산악에 대한 신앙과 숭배가 행하여졌다. 이러한 산악숭배는 태양·나무 등의 자연숭배신앙과 더불어 고대 가야인 신앙세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산악은 개국시조의 강림지로서 또는 개국의 성지로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불교가 전래된 뒤에는 불교사상과 융합되어 통시대적인 민간신앙으로 발전되어 왔다.

단군신화에 보이는 桓雄의 태백산 강림설화를 비롯하여 건국과 관련된 기록에 산이 등장하는 것도 이 산악신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야의 산악신앙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가락국기》에 보이고 있다.

後漢 光武帝 建武 18년 壬寅年 3월 禊浴日에 그 곳 북쪽 龜旨에서 수상히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므로 이에 내려오게 되었다.

이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야인들에게 있어 구지봉은 시조가 강림한 신성한 곳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상은 다른 삼국의 건국설화에도 보이고 있다. 즉 고구려가 句麗山 아래에서 建都하였다는지, 신라 6촌의 시조가 모두 산에서 내려왔다는지 하여 고대국가의 건국을 산악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은 고대인의 산악신앙관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그 외 가야인의 신앙으로 연해안이나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龍信仰이 있었으리라 추측되며, 《가락국기》의 「禊浴日」이란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禊浴·禊飲의 풍속²³⁾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23) 이에 대해서는 丁仲煥, 〈三國遺事와 日本書紀에 보이는 祓禊思想〉(《東國史學》 15·16, 1981), 137~148쪽 참조.

그 밖의 풍속을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弁辰傳을 통해 보면, ① 牛馬의 乘駕풍속, ② 嫁娶의 隸屬에 있어 男女有別의 풍속, ③ 歌舞와 飲酒를 즐기는 풍속, ④ 編頭풍속, ⑤ 文身풍속, ⑥ 부역을 서쪽에 두는 풍속, ⑦ 의복이 潔淸하고 長髮하는 풍속, ⑧ 法俗이 준엄한 풍속, ⑩ 길 가다 사람을 만나면 길을

3) 유물자료에 보이는 신앙과 풍속

(1) 장례 풍속

가. 부장 풍속

古墳에서는 그 주인공이 살아 생전에 사용하였던 물건뿐만 아니라 부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물품들도 출토되고 있다. 이런 부장 풍속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유래되는 것이다.²⁴⁾ 그러므로 동물을 殉葬²⁵⁾한다거나 馬具 또는 동물 형상을 한 토기를 함께 매장하고 있다.

가야지역에서 마구가 출토된 예를 살펴보면, 陝川 玉田古墳에서 馬面冑가 출토되었으며 咸安 道項里에서는 馬甲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말 형상을 한 토기의 예로는 金海 출토라고 전하는 騎馬人物土器, 府院洞 출토 馬形土偶²⁶⁾ 등이 있다.

한편 물새모양의 鴨鳥形土器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기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큰 새의 깃털로써 죽은 자를 葬送하는데 그 뜻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날아 올라 가도록 함에 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弁辰).

가야 사람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 다니는 큰 새의 깃을 함께 매장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압형토기를 昇天乘駕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낙동강에 무리 지어 서식하고 있어 고대인의 주요 식량원의 하나로서

사양하는 풍속 등이 있었다고 한다.

24) 副葬풍습은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적 신앙이 확립되는 시기에 이르면 양적으로 풍부하여졌다고 생각된다.

25) “牛馬를 탈 줄 모르고 우마는 죽은 사람을 葬送하는 데 모두 쓰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등에서 알 수 있다.

26) 이러한 것들은 말 토테미즘의 유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死者에 대한 식량을 상징하는 明器로서 부장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되기도 하였다.²⁷⁾ 가야의 압형토기로는 咸安 34호분 출토품과 金海 大成洞 고분 출토품 등이 있다. 그 밖에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한다는 뜻과 승천 길을 안녕히 돌아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²⁸⁾를 지닌 土履・車形車輪土器 등도 가야지역에서 출토되었다.

나. 순장풍속

물건을 부장하는 외에 한 집단의 지배계층에 속한 인물이 죽었을 때 그 뒤를 따라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하위계층의 사람을 같이 묻는 것을 殉葬이라 한다. 이러한 풍속도 피장자가 죽은 뒤에도 평상시의 생활이 재현된다는 내세사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그 첩이나 신하 혹은 노예 등을 함께 매장하였던 것이다. 순장풍습은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순장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은 자는 百數를 헤아린다(《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扶餘).

3년 춘3월에 습을 내려 순장을 금지하였다. 前 國王이 죽자 남녀 각각 5사람을 순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 것이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이러한 순장 기록은 가야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고학적 발굴조사 자료를 보면, 고령 池山洞 45호분²⁹⁾과 창녕 校洞 3호분³⁰⁾ 등에서 순장이 행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지산동 45호분에서는 출토유물의 분석결과 侍者와 창고지기・무사 등이 主槨인 석실묘에 각각 순장되어 있었다.

그 외 신라지역인 梁山 夫婦塚과 義城 塔里, 順興 읍내리, 東萊 福泉洞 등의 고분에서도 순장풍속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나온 바 있다.

27) 金元龍, 〈新羅・伽耶 動物形土器 小考〉(《韓國美術史研究》, 一志社, 1987), 585~586쪽.

28) 尹世英, 〈古墳에 副葬된 土器의 一考察〉(《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I 考古學篇, 一志社, 1987), 416쪽.

29) 高靈郡, 《大加耶古墳發掘調查報告書》(1979).

30) 東亞大博物館, 《昌寧校洞古墳群》(1992).

(2) 점복풍속

사람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판단하는 주술적 행위를 占이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인류의 생활과 더불어 일찍부터 발달하여 왔다. 고대 한국의 占卜은 중국 영향을 받아 행하여졌는데, 점복이란 獸骨과 龜甲을 사용하는 점인 것이다. 대체로 수골은 짐승의 肩甲骨을, 귀갑은 복부의 甲을 사용하였던 듯하다. 문헌에 의하면 부여에서는 전쟁이 있으면 하늘에 제사하고 소를 죽여 그 발굽으로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즉 발굽이 갈라진 것은 흉한 것이고 합한 것은 길한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³¹⁾

한편 우리 나라에서도 卜骨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야지방의 것으로는 김해 府院洞과 鳳凰洞에서 출토된 것들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사슴 견갑골을 이용한 無字卜骨인데, 동반된 유물로 보아 1~2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외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 부산 朝島, 진해 熊川 등지에서도 출토되었다.

(3) 기 타

그 외 태양숭배사상의 상징물로서 銅鏡을 제작하여 숭배하였다. 鏡은 단순히 얼굴을 비춰보는 용도만이 아니라 태양 또는 일광을 상징하는 샤먼적인 요소가 강하게 담겨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 이래 만들기 시작하여 가야시대까지 그 전통을 남기고 있는데, 金海 良洞里 제55호 木棺墓에서 동경과 함께 劍·玉의 3寶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3보가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일본에도 전파되어 神社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한편 김해 부원동 유적에서 馬形토우와 함께 남성 성기 모양의 토우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고대인들의 생식과 생산 및 식량 획득·풍요·辟邪 등의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儀器로서 가야인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沈奉謹〉

31)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夫餘.

찾아보기

[ㄱ]

- 가라(국) 加羅(國) 295, 296, 344, 360, 361
 가라왕 加羅王 278, 362
 가라 7국 加羅 七國 374, 376
 가락(국) 駕洛(國) 9, 289, 296, 303, 304, 312, 321
 가락 9촌 駕洛 九村 315
 《가락국기》《駕洛國記》 10, 275, 303, 312, 411
 가실 嘉實 240
 가실왕 嘉悉王 337
 가야 加耶(伽耶·伽倻) 108, 295, 297
 「가야」·「가라」를 가리키는 차자 「伽耶」·「加羅」를 가리키는 借字 295
 「가야」·「가라」의 어원 「伽耶」·「加羅」의 語源 295
 가야금 伽耶琴 112, 113, 337
 가야문화의 특징 伽倻文化의 特徵 343
 가야산 伽耶山 313
 가야식 토기 加耶式 土器 226
 가야연맹 伽耶聯盟 113
 가야연맹 집사 加耶聯盟 執事 362
 가야 제국 加耶諸國 236
 가야 중심군 伽耶 中心群 292
 가야 7국 伽耶七國 377, 384
 가야 7국 평정(군) 伽耶七國 平定(軍) 384, 388
 가야토기 伽耶土器 293
 가잠성 暇岑城 108
 각간 角干 88, 270
 각덕 覺德 126, 129
 간 干 162, 165
 간군 계열 干群 系列 251, 259, 265
 간지 干支 164, 250
 갈문왕 葛文王 116, 186, 187, 248, 249, 254
 감로국 甘路國 328
 감문국 甘文國 45, 210
 감문주 甘文州 113, 196
 감물야촌 甘勿也村 311
 감사지 監舍知 175
 갑자혁명설 甲子革命說 28
 강수 强首 229
 〈강수전〉〈强首傳〉 301
 개국 開國 106
 개로왕 蓋鹵王 70, 143
 《개황력》《開皇曆》 320
 거벌모라남미지 居伐牟羅男彌只 115
 거서간 居西干 37
 거칠부 居柒夫 105
 거칠산국 居柒山國 39, 43
 건국신화 建國神話 13
 갈사표 乞師表 150
 걸손국 乞浪國 345, 368
 걸탁성 乞乇城 350, 351
 견당사 遣唐使 135
 견상군어전사(이누카미키미노미타스키) 犬上君御田耜 152
 견수사 遣隋使 152
 견아성 犬牙城 72
 겸익 謙益 106
 겸포 縑布 226, 231
 경 卿 174, 177, 179, 229, 267
 경산부 京山府 298

- 경산 임당동 고분 慶山 林堂洞 古墳 52
 경여갑당 京餘甲幢 202
 경위 京位 84, 165, 169, 260, 264, 271
 경위제 京位制 5, 163, 166, 264, 266, 270
 경주분지 慶州盆地 85
 경주시 황성동 제철유적 慶州市 隍城洞
 製鐵遺蹟 225
 계금당 鬍衿幢 207
 계룡 鷄龍 17
 계림(국) 鷄林(國) 14, 37, 246
 계림령 鷄立嶺 45, 209, 232
 계림현 鷄立峴 109
 계육 禊浴 10
 계육일 禊浴日 419
 게체(케이타이)천황 繼體天皇 144
 고간 高干 166
 고구려 高句麗 3~5, 232
 고대봉토 高大封土 64
 고량부리 古良夫里 83
 《고려사》지리지 《高麗史》地理志 315
 고령 高靈 403
 고령가야 高寧加耶 297, 298, 379, 386
 ~389, 399
 고령 양전동 高靈 良田洞 409
 고령 지산리 고분군 高靈 池山里 古墳群
 335, 336, 357
 고소부리(군) 古所夫里(郡) 56, 83
 고순시국 古淳是國 299, 328
 고연무 高延武 51
 고이해 古爾解 391
 고자국 古自國 330
 고자미동국 古資彌凍國 298, 299, 328
 고조 高祖 148
 고조선 古朝鮮 1, 9
 고차국 古嵯國 → 구차국 久嗟國
 고파 古跛 349
 고표인 高表仁 153
 고해진 古奚津 384
 고향현리(타카무쿠노쿠로마로) 高向玄理
 155
 고흥촌장 高墟村長 14
 고흥 高峴 107
 고흥 高興 413
 골벌국 骨伐國 44, 51
 골제 骨制 252, 259
 골품제(도) 骨品制(度) 7, 99, 162, 243,
 245
 공민 公民 239
 공복제 公服制 96, 249
 공부 貢賦 228
 공인 工人 230
 공인집단 工人集團 53
 공장부 工匠府 229
 공형 公兄 271
 과고 過古 375
 관개시설 灌溉施設 80
 관도 官道 195, 210, 211, 234
 관등제(도) 官等制(度) 5, 99, 162~
 164, 169, 249, 260, 263, 266
 관록 觀勒 149, 166
 관미성 關彌城 66
 관산성 管山城 107, 366
 관산성 전투 管山城戰鬪 399
 관영수공업 官營手工業 7, 227
 광개토왕 廣開土王 9, 331
 〈광개토왕릉비〉 〈廣開土王陵碑〉 4,
 66, 141, 278, 282, 284, 301, 379, 387
 광역주 廣域州 196, 198
 팽이 大鋤 217
 교기 翹岐 154
 교역기관설 交易機關說 286
 교통로 交通路 208
 9간 九干 314, 418
 구나한국 狗那韓國 378, 379, 381
 《구당서》《舊唐書》 141
 구도 俱道 25
 구도성 仇刀城 214
 구례모라(성) 久禮牟羅(城) 354~356,
 구례산 久禮山 283
 구림 鳩林 24

- 구명제 九命制 259
구법승 求法僧 129
구사모라 久斯牟羅 354, 355
구야(국) 狗邪(國) 282, 296, 300, 322, 328
구야국의 성립 시기 狗邪國의 成立時期 321
구야진지림 拘邪秦支廉 325
구야한국 狗邪韓國 309
구양성 狗壤城 29
구이신왕 久爾辛王 143
구지 久氐 375, 376
구정리 九政里 35
9중나마 九重奈麻 164
9중대나마 九重大奈麻 268
구지(봉) 龜旨(峰) 15, 313, 419
구지가 龜旨歌 313
구차(국) 久嗟(國) 298, 345, 361, 368
구천 狗川 107
구칠 仇柒 416
구해 仇亥 51, 111, 238, 353
구형왕 九衡王 303
국반 國飯 103
《국사》《國史》 97, 413
국사 國士 259, 267
국원성 國原城 108
국원소경 國原小京 7, 108
국유지 國有地 235
국읍 國邑 40
국인 國人 87, 89
국학 國學 179, 268, 413
군 郡 198
군관구 軍管區 94
군령 軍令 362
군사 軍師 271
군사당 軍師幢 205
군사당주 軍師幢主 100, 175
군장사회 君長社會 291
군주 軍主 7, 41, 94, 97, 171, 181, 195 ~198, 203, 208
군주 郡主 41
굴산성 屈山城 75, 214
궁중수공업 宮中手工業 7, 227
궐표 櫛標 62, 264
귀간 貴干 166
귀당 貴幢 204
극종 克宗 55, 232
근강모야신 近江毛野臣 280, 351
근시기구 近侍機構 119
근초고왕 近肖古王 66
금강산 金剛山 16
금관 金冠 14, 82
금관 金官 111, 353
금관가야 金官伽耶 8, 95, 111, 253, 255, 290, 297, 372, 379~383, 388, 394, 403
금관국 金官國 20, 50, 145, 298, 300, 304, 317, 352, 353
금관국왕 金官國王 238
금돌성 金突城 213
금동관 金銅冠 52, 225
금은세공품 金銀細工品 225
금전 錦典 227
금하신 衿荷臣 176
금현성 金峴城 106, 365
금량부 及梁部 258
금찬 級漣 171
기능말다간기 己能末多干岐 353, 354
기린 麒麟 15
기마민족 騎馬民族 64
기마민족 정복왕조설 騎馬民族 征服王朝說 288
기마진투 騎馬戰鬪 38
기문 己汶 109, 282, 302, 339, 395, 397
기부리지가 己富利知伽 349
기생반 설화 紀生磐 說話 280
기생반숙네(기노오히하노스쿠네) 紀生磐 宿禰 391
기오공 起烏公 254
기전 綺典 227
길대상 吉大尙 390

- 김비신(기비노오미) 吉備臣 358, 362, 399
 길사 吉士 163
 길지 吉之 167
 김구해 金仇亥 → 구해 仇亥
 김다수 金多遂 155
 김대문 金大問 120
 김문왕 金文王 135~138
 김법민 金法敏 134, 135
 김삼광 金三光 136~138
 김수로왕 金首露王 → 수로왕 首露王
 김씨 왕실 金氏王室 248
 김씨 왕조 金氏王朝 3, 65
 김알지 신화 金閼知 神話 13
 김용춘 金龍春 → 용춘 龍春
 김유신 金庾信 90, 113, 235
 김인문 金仁問 135~138, 235
 김질왕 金鎰王 411
 김춘추 金春秋 99, 134~138, 155, 181, 253, 256
 김해 대성동 고분군 金海 大成洞 古墳群 331, 373, 378
 김해 부원동 패총 金海 府院洞 貝塚 378, 404
 김해 양동리 金海 良洞里 321
 김해 지내동 웅관묘 金海 池內洞 甕棺墓 378
 김해 회현리 金海 會峴里 404
 김헌창의 반란 金憲昌의 反亂 259
 김후직 金后稷 128
 까치 鵲 21
- [ㄴ]
- 나두 邏頭 200, 240, 271
 나마 奈麻 165, 172
 나마군 奈麻群 164
 나을 奈乙 74
 나제동맹 羅濟同盟 4, 398
 낙노국 樂奴國 299, 328
 낙동강 洛東江 403
 낙랑(군) 樂浪(郡) 3, 8, 319, 330, 408
 난생설(신)화 卵生說(神)話 13, 15, 418
 난파길사국승(나니와노키시쿠니카즈) 難波吉士國勝 157
 남가라(국) 南加羅(國) 9, 297, 298, 302, 345, 352, 353
 남가야 南加耶 297, 298
 남경여직 男耕女織 233
 남당 南堂 5, 184, 264
 남당회의 南堂會議 184
 남방문화 南方文化 13
 남부가야 南部伽倻 112
 남산 南山 14
 남산신성 南山新城 212, 230
 〈남산신성비〉 〈南山新城碑〉 98, 115, 240
 《남제서》가라국전 《南齊書》加羅國傳 278
 남천주 南川州 108, 197
 남한경영론 南韓經營論 278
 남해차차웅(왕) 南解次次雄(王) 18, 28
 낫 鎌 78, 218
 낭당 郎幢 207
 낭성 娘城 106, 112
 〈낭혜화상비〉 〈朗慧和尚碑〉 252, 259, 260
 내만 內灣 406
 내물마립간(왕) 奈勿麻立干(王) 3, 61, 73, 142, 243, 246, 247, 264
 내성 內省 119, 128, 227
 내성사신 內省私臣 178, 227
 〈냉수리비〉 〈冷水里碑〉 → 〈영일 냉수리 신라비〉 〈迎日 冷水里 新羅碑〉
 노구 老嫗 17
 노당 弩幢 174
 노동 奴僮 230
 노리부 弩里夫 128
 노부 鹵簿 118
 노사지 弩舍知 174

노인법 奴人法 98
 녹읍 祿邑 238
 농경문청동기 農耕文靑銅器 217
 농업생산력 農業生產力 78
 농촌공동체 農村共同體 81
 뇌질주일 惱室朱日 316, 412
 뇌질청예 惱室靑裔 316
 뇌질청일 惱室靑逸 412
 눌지(마립간, 왕) 訥祗(麻立干, 王) 63,
 70, 143, 411
 니하 泥河 75

[ㄷ]

다다라 多多羅 279, 353
 다다라원 多多羅原 111, 353
 다라국 多羅國 112, 344, 360, 361, 368
 다벌국 多伐國 44, 54
 다사 多沙 397
 다사진 多沙津 340
 다파나국 多婆那國 19, 38
 다호리 고분 茶戶里 古墳 219
 단군신화 檀君神話 415
 단양이 段楊爾 340
 〈단양 적성비〉 〈丹陽 赤城碑〉 98,
 107, 115, 117, 236, 269
 달벌성 達伐城 55, 194, 232
 달성 達城 55, 213
 담육 曇育 128, 129
 담징 曇徵 150
 당주 幢主 7, 181, 199, 271
 당항성 黨項城 108, 126
 대가야(국) 大加耶(國) 9, 110, 113,
 290, 297, 312, 336, 399, 403
 대가야 시조신화 大伽耶 始祖神話 337
 대가야·안라 이원체제 大伽耶·安羅
 二元體制 359
 대각간 大角干 163
 대감 大監 174, 234
 대관대감 大官大監 172, 175, 267

대구 비산동 大邱 飛山洞 52
 대궁 大宮 118, 178, 227, 235
 대나마 大奈麻 167
 대당 大幢 7, 94, 100, 202, 203
 대당외교 對唐外交 109
 대도서 大道署 177
 대두 大豆 223, 242
 대등 大等 103, 118, 189~192
 대등회의 大等會議 6, 119, 187
 대마도 對馬島 408
 대묘 大廟 18
 대방군 帶方郡 3, 8, 65, 67, 330, 408
 대보 大輔 38, 41
 대사 大舍 163, 164, 174, 176, 177, 179
 대사 帶沙 109, 282, 302
 대사강 帶沙江 341
 대사진 帶沙津 340
 대산성일 大山誠一 280
 대서지 大西知 62
 대세 大世 416
 대신회의 大臣會議 189, 190
 대아간지 大阿干支 167
 대아찬 大阿漭 169, 171, 250, 251
 대야성 大耶城 108
 대야성사건 大耶城事件 133
 대왕 大王 116
 대일벌간 大一伐干 187
 대장척당 大匠尺幢 205
 대관부 도읍의 TK3호요 大阪府 陶邑의
 TK三號窯 381
 대화개신(타이카노카이신) 大化改新 154
 대화조정 大和朝廷 146
 덕업일신 德業日新 92
 덕지 德智 72
 덕치주의 德治主義 413
 도가 刀伽 349
 도독 都督 171, 267
 도사 道使 181, 200, 240, 271
 도살성 道薩城 106, 365
 도설지왕 道設智王 303

도작 稻作 404
 도작농업 稻作農業 404
 도작문화 稻作文化 378
 도질토기 陶質土器 226
 독로국 瀆盧國 299, 328
 독산성 獨山城 72, 363
 독산성주 禿山城主 67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297,
 298, 302
 동래 복천동 東萊 福泉洞 373
 동륜태자계 銅輪太子系 256
 동성왕 東城王 72, 143
 동시 東市 80, 233
 동시전 東市典 7, 80
 동악 東岳 39
 동악신 東岳神 22
 동이매금 東夷寐錦 69
 동진 東晉 101, 411
 두상대감 頭上大監 267
 두품제 頭品制 252, 257~260
 득난 得難 258, 259, 268
 득오 得烏 263

[ㄹ]

령 습 174, 177, 179, 229, 267

[ㄴ]

마거 馬陁 235
 마도 麻都 358, 361, 362
 마라난타 摩羅難陀 411
 마립간 麻立干 3, 61, 77, 161
 마립간시대 麻立干時代 162
 마문토기 馬文土器 15
 마수비 麻須比 341
 마숙 馬叔 43
 마야부인 摩耶夫人 103
 마전 麻田 238
 마제 摩帝 88

마진성 馬津城 363
 마차해 麻且奚 341, 348
 마포 麻布 231
 마한 馬韓 1, 3, 238, 323
 마형토기 馬形土器 15
 막고 莫古 375
 만세 萬世 128, 129
 말갈 靺鞨 29
 말금한기 末錦旱岐 375
 망라사방 網羅四方 92
 매금왕 寐錦王 91, 116, 186, 188, 249
 맥국 貊國 49
 면석착인 面石捉人 230
 멸구빈 滅垢玢 126
 명관 明觀 126, 129
 명활산 明活山 16
 〈명활산성 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
 115
 명활(산)성 明活(山)城 195, 212
 모가야 某加耶 371
 모가야 형태의 기록 某加耶 形態의 記錄
 297
 모량부 牟梁部 247, 253
 모례 毛禮 101
 모루 牟婁 302
 모법 母法 98
 모산성 母山城 72
 모용씨 慕容氏 65
 모즉지매금왕 牟卽智寐錦王 88
 모탁부 牟喙部 86
 목라근자 木羅斤資 279, 384, 386, 387,
 390
 목만치 木滿致 284, 279, 390, 392
 목지국 目支國 28, 325
 목지국 진왕 目支國 辰王 326
 목책성 木柵城 216
 무력 武力 107, 113
 무령왕 武寧王 145, 282
 무불융합 巫佛融合 103
 무열왕 武烈王 255, 256

무왕 武王 149
 무자복골 無字卜骨 422
 무제 武帝 102
 묵호자 墨胡子 101, 126, 411
 문모라 汶慕羅 341
 〈문무왕릉비〉 〈文武王陵碑〉 25
 문부 文賦 258
 물계자전 勿稽子傳 330
 물부수옥(모노노베노모리야) 物部守屋 147
 물장고 物藏庫 239
 미륵 彌勒 120
 미륵신앙 彌勒信仰 103
 미리미동국 彌離彌凍國 299, 328
 미마나 彌摩那 300
 미무 彌武 156
 미사흔 未斯欣 62, 142, 185
 미오야마국 彌烏邪馬國 299, 328
 미주류 彌州流 375
 미질부 彌秩夫 72
 미추니사금 味鄒尼師今 61
 미추왕릉 味鄒王陵 18
 민 旻 153
 민간수공업 民間手工業 7
 민달(비다츠)천황 敏達天皇 146

[ㅂ]

박씨 朴氏 248
 박씨 왕비 朴氏 王妃 248, 253, 255
 박제상 朴堤上 63, 70, 185, 232, 320, 413
 박혁거세 신화 朴赫居世 神話 13, 14
 반로국 半路國 298, 299, 328, 337
 반월형석도 半月形石刀 78, 217
 반월형철도자 半月形鐵刀子 78
 반정(이와이) 磐井 145
 반파(국) 伴跛(半跛·叛波)(國) 85, 298, 304, 337, 393
 방리 坊里 73, 81, 249

방술 方術 415
 배벌 背伐 353
 배세청 裴世淸 150
 백강구전투 白江口戰鬪 157
 백고좌 百高座 128
 백관 공복 百官公服 98
 백관당 百官幢 203
 백외부황자(하츠세베노오오지) 白瀬部皇子 147
 백반 伯飯 103
 백성 百姓 8, 260
 백정 白淨 103
 백제국 百濟國 3~5, 9, 28, 232
 백제 군사령부 百濟 軍司令部 283
 백제대사 百濟大寺 153
 벌휴니사금 伐休尼師今 32
 법당 法幢 202, 208, 216
 법당군단 法幢軍團 100, 202
 법정 法定 150
 법흥사 法興寺 147
 법흥왕 法興王 4, 76, 93, 95, 145, 348, 411
 베틀 織造機 231
 벽골제 碧骨堤 79, 222
 벽진가야 碧珍伽倻 297
 변진 弁辰 1, 299
 변진 소국 弁辰 小國 289, 323
 변진 소국들의 내부 구조 弁辰 小國들의 内部 構造 323
 변진 12국 弁辰 十二國 322, 323
 변진 12국의 위치 弁辰 十二國의 位置 327
 변한 卞韓 300
 변한 弁韓 1, 2, 275, 282, 299, 319, 403
 변한소국연맹 弁韓小國聯盟 300, 326
 별읍 別邑 417
 병부 兵部 5, 95, 97, 119, 174~178, 229
 병부령 兵部令 174
 보검성 寶劍成 229

보국장군본국왕 輔國將軍本國王 337
 보기 寶伎 365
 보기당 步騎幢 205
 보덕국 報德國 50, 253
 보라국 保羅國 330
 보리 麥 223
 보리농사 麥農事 79
 보습 犁先 78, 220
 복속 소국 服屬 小國 193, 194
 복인(후쿠인) 福因 151
 복호 卜好 62, 142, 185, 414
 본가야 本伽耶 8, 290
 《본조사략》《本朝史略》 298
 본피궁 本彼宮 235
 본피부 本彼部 85, 247, 250, 253, 258
 본피현 本彼縣 298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
 大師寂照塔碑〉 95
 〈봉평비〉〈鳳坪碑〉 → 〈울진 봉평
 신라비〉〈蔚珍 鳳坪 新羅碑〉
 부 部 84
 부견 苻堅 62, 124
 부곡 釜谷 229
 부산성 富山城 212
 부세제도 賦稅制度 241, 242
 부여 송국리 扶餘 松菊里 404
 부을무산 夫乙無山 311
 부제 部制 76
 부족국가 部族國家 289, 290
 부집단 部集團 84
 부체제 部體制 73, 76
 북구주의 조창요지 北九州의 朝倉窯址
 381
 북방문화 北方文化 13
 북방형 신화 北方型 神話 15
 북성 北城 71
 북위 北魏 70, 93
 북제 北齊 146
 북주 北周 260
 〈북한산비〉〈北漢山碑〉 108

북한산주 北漢山州 108, 113
 분국설 分國說 288
 분수승 焚修僧 102
 분신리아불례 漬臣離兒不例 325
 분업체계 分業體系 227
 불교 佛教 4, 95
 불교식 왕명시대 佛教式 王名時代 103
 불교의 공인 佛教 公認 117
 불내 不耐 49
 불로장생 不老長生 415
 불신의 외이 不臣의 外夷 148
 비담 毗曇 155, 181
 비담의 (반)난 毗曇의 (反)亂 6, 133
 비류왕 比流王 143
 비리성 碑利城 215
 비마라 毗摩羅 130
 비사벌 比斯伐 113
 비사벌주 比斯伐州 113, 197
 비산-내당동세력 飛山-內唐洞勢力 55
 비산동 석실묘 飛山洞 石室墓 54
 비열홀정 比列忽停 203
 비열홀주 比列忽州 113, 197
 비자발국 比自扶國 298
 비자벌 比子伐 83
 비자벌정 比子伐停 196
 비자벌주 比子伐州 196
 비조부 比助夫 110, 348
 비지 費智 353
 비지 比智 72, 143
 비지국 比只國 44
 비화가야 非火加耶 113, 297

[人]

사 史 174, 176, 177, 179
 사다함 斯多含 113, 236, 367
 사대등 仕大等 201
 사도도 沙都嶋 341
 사도성 沙道城 57
 4두품 四頭品 258, 260, 266, 267

- 4등관제 四等官制 6
- 사랑궁 沙梁宮 118, 178, 227, 235
- 사랑부 沙梁部 88, 247, 258
- 사로국 斯盧國 2, 3, 34, 243, 246, 264, 266, 269
- 사로 6촌 斯盧 六村 33, 85, 246
- 사마숙네(시마스쿠네) 斯摩宿禰 375, 380, 382, 383
- 사물국 史勿國 330
- 사방군주 四方軍主 113, 196, 241
- 사벌국 沙伐國 37, 45, 85, 210
- 사벌주 沙伐州 196, 197
- 사부지왕 夫智王 186
- 사비회의 泗批會議 360, 361, 362
- 사사노궤(사사나코) 沙沙奴跪 388
- 사설당 四設幢 203
- 사성 賜姓 41
- 사신 仕臣 171
- 사신 私臣 129, 178
- 사유지 私有地 235
- 사은사 謝恩使 132
- 사이기(국) 斯二岐(國) 344, 360, 361, 365, 368
- 사인 使人 200
- 사자기 師子伎 365
- 사정부 司正府 118, 119, 174, 175
- 사족지 邪足智 167
- 4중아찬 四重阿飡 163, 172, 267, 268
- 사지 舍知 163, 165, 172, 174
- 사지군 舍知群 164
- 사천왕사 四天王寺 14
- 사타 娑陀 302
- 사탁부 沙喙部 85, 116, 247~249, 253
- 사택지적 砂宅智積 154
- 사피부 斯彼部 86, 247
- 산반하국 散半下國 345, 368
- 산반해 散半海 360, 361
- 산성 山城 6, 216
- 산악숭배신앙 山岳崇拜信仰 415
- 산정 강루리 山淸 江樓里 409
- 살수원 薩水原 72
- 《삼국지》《三國志》 9
- 삼기문 三己汶 390, 391
- 삼년산성 三年山城 75, 195, 214
- 3두품 三頭品 8, 260
- 삼론종 三論宗 152
- 3성 교립 三姓交立 246, 248
- 3성 세계 三姓世系 3, 30
- 3성 집단 三姓集團 36
- 33금입택 三十三金入宅 230
- 3족토기 三足土器 357
- 삼천당 三千幢 205, 206
- 삼천포 늑도 三千浦 勒島 404
- 삼한 三韓 9
- 삼한사회 三韓社會 1
- 삼한정벌 三韓征伐 140
- 상가라도 上加羅都 317
- 상간 上干 166
- 상경 常耕 222
- 상고기 上古期 76
- 상군 上軍 128, 129
- 상당 上堂 171, 176
- 상대등 上大等 6, 95, 117, 118, 174, 180~182, 191, 250
- 상미 上米 242
- 상방경 尙方鏡 310
- 상복법 喪服法 93
- 상사서 賞賜署 118, 177
- 상신 上臣 171
- 상주 上州 196, 197
- 상주정 上州停 196, 203
- 상주행사대등 上州行使大等 196
- 상치리 上哆唎 302
- 상하가야연맹 上下加耶聯盟 290
- 색복조 色服條 98
- 생산력 生産力 77
- 생애 유형 生涯有形 263
- 샤머니즘 Shamanism 10
- 《서기》《書記》 413
- 서당 誓幢 207

- 서라벌 徐羅伐 83
 서명(조메이)천황 舒明天皇 152
 서약의 관념 誓約의 觀念 262
 서울 구의동 서울 九宜洞 220
 서현 舒玄 113
 서형산성 西兄山城 212
 석곽묘 石槨墓 54
 〈석순응전〉〈釋順應傳〉 317, 412
 석씨 昔氏 248
 〈석이정전〉〈釋利貞傳〉 312, 412
 석총 石塚 22
 석축성 石築城 216
 석탈해 신화 昔脫解 神話 13
 선가야시대 先加耶時代 293
 선덕여왕 善德女王 76, 253, 256, 257
 선부 船府 229, 234
 선부서 船府署 177
 선산군 해평면 낙산리 善山郡 海平面
 洛山里 52
 선신니 善信尼 147
 설계두 薛闕頭 268
 설씨 薛氏 268
 성 成 229
 성골 聖骨 7, 252~257, 260
 성곽시설 城郭施設 212, 215
 성덕(쇼우토쿠)태자 聖德太子 147
 성문법 成文法 96
 성법흥대왕 聖法興大王 116, 117
 성산가야 星山伽耶 297, 298
 성산패총 星山貝塚 311
 성씨 姓氏 247
 성열현 省熱縣 365
 성왕 聖王 145
 성읍국가 城邑國家 243, 247, 264, 290
 성이 聖而 252
 성주 城主 232, 362
 성한 聖韓 74
 세공 歲貢 409
 세속오계 世俗五戒 7, 120
 세제 稅制 114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311, 315
 소가야 小加耶 297
 소감 少監 175
 소경 小京 81, 108, 200
 소경여갑당 小京餘甲幢 203
 소녀 小女 240
 소도 蘇塗 417
 소문국 召文國 42, 44, 45
 소벌공 蘇伐公 14
 소사 小舍 167
 소석착인 小石捉人 230
 소수 小守 200
 소수림왕 小獸林王 413
 소아마자(소가노우마코) 蘇我馬子 147
 소야매자(오노노이모코) 小野妹子 150
 소오 小烏 167
 소자 小子 240
 소전 疏典 227
 소지마립간(왕) 炤知麻立干(王) 62,
 139, 143, 246
 소천구 疏川丘 22
 소판 蘇判 253
 소형 小兄 51
 《송서》《宋書》 141
 《송서》왜국전 《宋書》倭國傳 301
 쇠스랑 鐵搭 218
 수경직파 水耕直播 223
 수공업 手工業 80, 81
 수나라 須那羅 353
 수덕개 首德皆 51
 수로(왕) 首露(王) 10, 290, 303, 316
 수로왕 신화 首露王 神話 312, 313
 수로하강신화 首露下降神話 282
 수륙겸종 水陸兼種 223
 수리시설 水利施設 80
 수목신앙 樹木信仰 14
 《수서》《隋書》 6, 141, 240
 수직신압산(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 穗積
 臣押山 396

- 수전 水田 7, 222
수졸 戌卒 216
수혈식 석곽묘 堅穴式 石槨墓 342
숙위 宿衛 135, 136
숙위외교 宿衛外交 134
순도 順道 411
순장 殉葬 10, 420
순장의 금지 殉葬 禁止 93
순행 巡幸 55
순행 巡行 74
술간 述干 166, 270
승준(수우준)천황 崇峻天皇 147
습보갈문왕 習寶葛文王 91
습비부 習比部 86, 247, 258
승릉 僧隆 149
승부 乘府 118, 176, 229
승조양(수구리노토리카이) 勝鳥養 153
승천승가 昇天乘駕 420
시림 始林 246
시위부 侍衛府 181, 207
시전 市典 233
시제 矢堤 79, 222
시조신화 始祖神話 2, 13
시중 侍中 180
식읍 食邑 51, 112, 238
신공기 49년조 神功紀 四十九年條 282
신공황후(진구코우고우) 神功皇后 140, 278
신궁 神宮 74, 92
신김씨 新金氏 301
신단수 神檀樹 15
《신당서》《新唐書》 6, 89, 141
신라·가야문화권 新羅·伽耶文化圈 292
신라국왕 新羅國王 92
신라대왕 新羅大王 117
신라매금 新羅寐錦 68
신라문화의 특징 新羅文化의 特徵 343
신라 3보 新羅三寶 257
신라 송사 新羅 送使 152
신라식 토기 新羅式 土器 226
신라 중심군 新羅 中心群 292
신삼천당 新三千幢 207
신선사상 神仙思想 415
신선설 神仙說 415
신성혼 神聖婚 16
신운견지보 臣雲遣支報 325
신유림 神遊林 14
신정정치 神政政治 38
신주 新州 104, 107, 113
신주정 新州停 196
《신찬성씨록》길전련(조) 《新撰姓氏錄》
吉田連(條) 339, 390
실성(마립간) 實聖(麻立干) 62, 125, 142
실죽 實竹 72
실직곡국 悉直谷國 300, 320
실직국 悉直國 43
실직원 悉直原 71
실직주 悉直州 197
심경 深耕 78, 221
10도 十道 58
16나한 十六羅漢 411
10정 十停 202, 205, 206, 208, 216
17관등 十七官等 247, 265
17관등제(도) 十七官等制(度) 249, 260, 264
18반 관제 十八班 官制 260
쌍영총 고분벽화 雙楹塚 古墳壁畫 231
- [ㅇ]
- 아나가야 阿那加耶 297
아노 阿老 19
아단성 阿旦城 66, 71, 109
아달성태수 阿達城太守 238
아도간 我刀干 313
아도갈문왕 阿道葛文王 320
아도비 阿(我)道碑 102
아도화상 阿度和尙 95
아라가야 阿羅加耶 112, 291

- 아라국 阿羅國 298
 아리사등 阿利斯等 349, 353
 아막(산)성 阿莫(山)城 9, 108, 339
 아시촌 阿尸村 81
 아유타국 阿踰陀國 411
 아유타국 공주 阿踰陀國 公主 316
 아음부 阿音夫 51
 아잔 阿殘 36
 아좌 阿佐 148
 아진의선 阿珍義先 17
 아진포(구) 阿珍浦(口) 20, 29
 아찬 阿漣 163, 169, 172, 251
 악간 嶽干 165, 166, 270
 안다 安多 353
 안라 安羅 67, 145, 360, 361
 안라가야 安羅伽耶 396, 397
 안라국 安羅國 9, 280, 298, 344, 350, 363, 368
 안라왕 安羅王 362
 안라왜신관 安羅倭臣館 355, 356, 358, 359, 363
 안라제왜신 安羅諸倭臣 281
 안라회의 安羅會議 350
 안승 安勝 253
 안야국 安邪國 9, 299, 300, 328
 안야축지 安邪𪛗支 325
 안원왕 安原王 105, 352
 안장왕 安藏王 351
 안함 安含 128, 129
 안홍 安弘 128, 129
 알영 關英 14, 16
 알지 關智 246
 알지 신화 關智 神話 2
 알천 關川 16
 알평 謁平 16
 압독(국) 押督國 28, 47, 53, 57
 야로현 冶廬縣 312, 409
 야마토왜 大和倭 372
 야이차 也尔次 115
 야장 冶匠 22, 38, 81, 229
 야철 기술 冶鐵技術 38
 양궁 梁宮 118, 178, 227, 235
 양부 梁部 247
 양산 陽山 14
 양산부부총 梁山夫婦塚 421
 《양서》신라전 《梁書》新羅傳 94
 《양직공도》 《梁職貢圖》 337, 339
 어숙지술간묘 於宿智述干墓 102
 여금성 麗金成 229
 여도간 汝刀干 313
 여왕국 女王國 231
 여의수 餘宜受 156
 여창 餘昌 107
 역박사 曆博士 145
 역박사 易博士 145
 역역동원 力役動員 115
 연개소문 淵蓋蘇文 133
 연령집단 年齡集團 119, 261
 연맹왕국 聯盟王國 247, 248, 264, 290
 연석 礪石 404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237
 연정토 淵淨土 135
 연호 年號 95
 열병 閱兵 58
 염궁 染宮 227
 염승진 鹽乘津 390
 영양왕 嬰陽王 149
 영운(료운) 靈雲 153
 〈영일 냉수리 신라비〉 〈迎日 冷水里 新羅碑〉 82, 167, 185, 188, 191, 249, 264
 영즉지태왕 另卽知太王 116, 117
 예부 禮部 6, 118, 175
 5가야 五伽耶 298
 5경박사 五經博士 145
 오두미교 五斗米敎 415
 5두품 五頭品 258, 266~268
 오르도스 철기문화 Ordos 鐵器文化 64
 오릉 五陵 18
 5묘제 五廟制 18
 5문역 五門驛 210

- 5세기 가야지역의 유적 상황 五世紀 伽耶地域의 遺蹟 狀況 335
- 오수전 五銖錢 310
- 52읍록 五十二邑勒 101
- 5통 五通 210
- 오페르트 Ernest J. Oppert 244
- 온달 溫達 109
- 온달성 溫達城 214
- 와산성 蛙山城 29
- 완산정 完山亭 203
- 왕경의 행정구역 王京의 行政區域 239
- 왕도정치 王道政治 413
- 왕망전 王莽錢 310
- 왕비족 王妃族 91
- 왕세의 王世儀 128
- 왕실직속지 王室直屬地 235
- 왕위계승자 王位繼承者 118
- 왕호의 개정 王號 改正 92
- 왕후사 王后寺 10, 411
- 왜병 倭兵 4
- 왜5왕 倭五王 278
- 왜왕 제 倭王 濟 144
- 외관휴가제 外官携家制 97
- 외교교역설 外交交易說 285
- 외교기관설 外交機關說 287
- 외법당 外法幢 101
- 외여갑당 外餘甲幢 101, 199, 202
- 외위 外位 8, 264
- 외위제 外位制 84, 163, 264, 266, 269 ~ 271
- 외해 外海 406
- 요내정 遙乃井 22
- 요동군 遼東郡 65
- 용성국 龍城國 260
- 용수 龍樹 255
- 용춘 龍春 128, 227, 255
- 우거 牛車 73, 80, 234
- 우경 牛耕 7, 78, 219, 234
- 우록 于勒 108, 112, 365
- 우록 12곡 于勒十二曲 302, 339
- 우산국 귀복 于山國 歸服 46
- 우수정 牛首亭 203
- 우시산국 于尸山國 39, 43
- 우역 郵驛 73, 195, 210, 234
- 운충 雲聰 149
- 〈울진 봉평 신라비〉 〈蔚珍 鳳坪 新羅碑〉 18, 85, 96, 115, 167, 186, 187, 191, 249, 266, 269
- 웅략(유우라쿠)정권 雄略政權 144
- 웅천주 熊川州 236
- 원광 圓光 126, 128, 129, 150
- 원기 元器 135
- 원신라 原新羅 85
- 원안 圓安 129
- 원표 元表 102
- 원화 源花 19
- 월광태자 月光太子 317, 348, 412
- 월성 月城 212
- 위두 衛頭 62, 124
- 위례성 慰禮城 336
- 위만조선 衛滿朝鮮 318
- 위왜설 僞倭說 284
- 위진남북조 魏晉南北朝 96
- 위화부 位和府 6, 118, 176
- 유리니사금(왕) 儒理尼師今(王) 18, 29
- 유사 劉思 126
- 6가야연맹(체) 六伽耶聯盟(體) 290, 298
- 6가야의 명칭 六伽耶 名稱 299
- 6기정 六畿停 202
- 6난 六卯 315
- 6두품 六頭品 8, 251, 258, 259, 266 ~ 268
- 6부 六部 4, 6, 7, 29, 245, 247 ~ 253, 257, 258, 264, 266, 269
- 6부 개명 六部 改名 41
- 6부병 六部兵 42, 100, 201
- 6부소감전 六部少監典 229
- 6부인 六部人 84, 99
- 6부체제 六部體制 249 ~ 251
- 6안구 六眼龜 74

- 6경 六停 94, 101, 202~205, 208, 216
 윤공(인교우)천황 允恭天皇 143
 윤회전생사상 輪廻轉生思想 103
 율령 律令 4, 93, 95, 243, 249, 251, 252, 262, 264
 율령격식 律令格式 95
 율령국가 律令國家 96
 율령반포 律令頒布 260
 음성서 音聲署 179
 음즙벌국 音汁伐國 300, 320
 읍락 邑落 40
 읍락국가 邑落國家 293
 읍락국가연맹 邑落國家聯盟 293
 읍록 邑勒 94
 응신(오우진)천황 應神天皇 288
 의관제 衣冠制 98, 260
 의박사 醫博士 145
 의성 탑리 義城 塔里 52
 이계당 二闕幢 207
 이궁 二弓 207
 이나사 移那斯 358, 361, 362
 이뇌왕 異腦王 348
 이벌찬 伊伐漣 41, 163, 250
 2부체제 二部體制 36
 이불란사 伊弗蘭寺 102
 이비가지 夷毗訶之 316, 412
 이사금 尼師今 3, 62
 이사부 異斯夫 106, 111, 353
 이산 伊山 16
 이상택하전 里上宅下典 230
 이서(고)국 伊西(古)國 28, 47
 이열비 爾列比 341
 이중(리추)천황 履中天皇 142
 이진아시왕 伊珍阿豉王 303, 316
 이진아시왕 신화 伊珍阿豉王 神話 312, 316
 이질부례지간기 伊叱夫禮智干岐 111, 353
 이차돈 異次頓 102, 411
 이찬 伊漣 88, 163, 250
 이파이(니하야) 爾波移 375, 380
 인기(지)미 印岐(支)彌 283, 355, 358
 인두세 人頭稅 114
 인력경 人力耕 220
 일계 백제관료 日系 百濟官僚 396~399
 일기도 壹岐島 408
 1두품 一頭品 8
 일리군 一利郡 298
 일벌 一伐 165, 167
 일본대신 日本大臣 362
 일본부경 日本府卿 280
 일본부의 군현 日本府의 郡縣 284
 《일본서기》《日本書紀》 9, 278, 281, 282, 390, 391, 394
 《일본서기》에서의 「임나」 《日本書紀》에서의 「任那」 302
 일선계 一善界 75, 240
 일선군 一善郡 101
 일성니사금 逸聖尼師今 28
 일연 一然 102
 일척 一尺 167
 임나 任那 279, 290, 299, 300, 302
 임나가라 任那加羅 67, 301
 임나가랑 任那加良 301
 임나가야 任那伽耶 379
 「임나」를 가리키는 차자 「任那」를 가리키는 借字 300
 임나사 任那史 303
 임나 10국 任那 十國 344, 368
 임나의 조 任那의 調 279
 임나의 하한 任那之下韓 356
 임나일본부 任那日本府 10, 278, 280~284, 355
 임나일본부설 任那日本府說 8, 66, 276, 283
 임나 지배 任那 支配 279
 임례국 稔禮國 345, 368
 입실리 入室里 35
 잉여생산물의 증가 剩餘生産物 增加 80

[ㅈ]

자비마립간(왕) 慈悲麻立干(王) 100, 143
 자충 慈充 37
 자타(국) 子他(國) 345, 360, 361, 368
 자탄 子呑 341
 잠탁부 岑喙部 247, 250
 잡공 雜工 230
 잡찬 迺滄 250
 장군 將軍 181, 267
 장령진 長嶺鎭 57
 장로정치 長老政治 39
 장복 長福 154
 장인집단 匠人集團 224
 장척 匠尺 240
 재안라제왜신 在安羅諸倭臣 280
 재지세력(가) 在地勢力(家) 95, 97
 쟁기 犁 220
 적막이해 適莫爾解 391
 적산항로 赤山航路 125
 적석목곽분 積石木槨墳 3, 35, 64, 73, 331
 적신 的臣 359
 전기 가야 前期伽耶 8, 9
 전기 가야사 前期伽耶史 304
 전기 가야연맹 前期伽耶聯盟 326, 331, 403
 전대등 典大等 174, 177, 182
 전륜성왕 轉輪聖王 103
 전불칠처가람 前佛七處伽藍 14
 전사법 佃舍法 98, 236
 전사서 典祀署 179
 전사인 典事人 173, 175, 183
 전장 田莊 235
 전지 腆支 142
 전진 前秦 4, 124, 142, 411
 점복 占卜 10
 점양부 漸梁部 247
 점탁부 漸喙部 86

집도국 接塗國 299, 328
 정 停 94
 정견모주 正見母主 316, 412
 정방 正方 126
 정복국가 征服國家 64
 정사암 政事岩 90
 정약용 丁若鏞 276
 정친신앙 井泉信仰 14
 정철 正鐵 409
 제가회의 諸加會議 184, 185, 192
 제감 弟監 174, 175, 234
 제명(사이메이)천황 齊明天皇 156
 제문 諸文 128, 129
 제방 堤防 223
 제방수리 堤防修理 79
 제솔회의 諸率會議 184
 《제왕운기》《帝王韻紀》 14
 제2류 목관묘 第二類 木棺墓 373
 제천의례 祭天儀禮 417
 제철공방 製鐵工房 225
 조 粟 223
 조공 朝貢 49, 123
 조공관계 朝貢關係 124
 조문청동기 鳥紋靑銅器 21
 조부 租賦 118
 조부 調府 176, 241
 조역 調役 238
 조용조 租庸調 241
 조위 造位 163
 조위사 弔慰使 132
 조주 租主 241
 조하방 朝霞房 227
 족내혼 族內婚 255
 졸마(국) 卒麻(國) 344, 360, 362, 368
 종주국 宗主國 69
 좌우군주 左右軍主 42
 좌우장군 左右將軍 42, 100
 좌이방부 左理方府 179
 주군제(도) 州郡制(度) 6, 93, 97, 195, 211, 243

- 주다 酒多 88, 270
 주례 周禮 259
 주서 主書 229
 주의 관제 周의 官制 259
 주자사 朱子著 152
 주자의 차례 朱紫之秩 98
 주조 州助 267
 주조마국 走漕馬國 299, 328
 주주 州主 41
 주치 州治 196
 주행사대등 州行使大等 197~199
 죽령 竹嶺 45, 107, 109, 209, 213, 232
 죽죽 竹竹 84
 죽지 竹旨 263
 중고기 中古期 76
 중나마 重奈麻 164
 중사 中祀 22
 중시 中侍 6, 119, 175
 중아찬 重阿漭 163
 〈중원 고구려비〉 〈中原高句麗碑〉 68
 중위제 重位制 163, 164, 251, 268, 269
 중장기병부대 重裝騎兵部隊 202
 즉위의례 卽位儀禮 19
 즐목문토기 櫛木文土器 378
 汁恒世 135
 지달(치다치) 智達 157
 지도로갈문왕 至都盧葛文王 88
 지리산 地理山 313
 지마니사금 祇摩尼師今 28
 지명 智明 128, 129
 지배집단 支配集團 84
 지배체제 支配體制 97
 지신족 地神族 13
 지절사 持節使 131, 132
 지증마립간(왕) 智證麻立干(王) 76,
 91, 142, 243, 248
 지통(치츠) 智通 157
 직녀도 織女圖 231
 〈진경대사탑비〉 〈眞鏡大師塔碑〉 301
 진 陣 146
 진골 眞骨 7, 251~256, 260, 262, 266,
 267
 진군조직 鎭軍組織 208
 진금성 進錦成 229
 진덕여왕 眞德女王 76, 253, 256
 《진서》 4이전 《晉書》 四夷傳 325
 진성여왕 眞聖女王 252, 254
 진왕 辰王 288, 289, 324,
 진주 대평리 晉州 大坪里 409
 진주 옥봉 7호분 晉州 玉峯 七號墳
 220
 진지왕 眞智王 254, 256
 진촌주 眞村主 271
 진평왕 眞平王 76, 119, 147, 253, 256
 진한 辰韓 1~3, 20, 243, 319, 330
 진한(계) 소국 辰韓(系) 小國 50, 87,
 236
 진흥왕 眞興王 4, 76, 116, 146
 〈진흥왕 순수비〉 〈眞興王巡狩碑〉 269
 진흥태왕 眞興太王 117
 집사부 執事部 6, 118, 119, 174, 179~
 181

[次]

- 차차웅 次次雄 37
 차촌주 次村主 271
 찬간 撰干 166
 찬군 漭群 164
 찬염전 攢染典 227
 참모본부 參謀本部 66
 〈창녕비〉 〈昌寧碑〉 196~199, 269
 창림사 昌林寺 17
 창부 倉部(府) 119, 177, 179
 창원 다호리 1호묘 昌原 茶戶里 一號墓
 321
 채약사 採藥師 145
 책구루 幘溝婁 231
 책봉 冊封 124
 책봉사 冊封使 132

천강신화 天降神話 13, 15
 천경림 天鏡林 14, 102
 천군 天君 417
 천마도 天馬圖 15
 천마총 天馬塚 15, 73, 226
 천명부인 天明夫人 255
 천명사상 天命思想 414
 천복 天福 135
 천손강림신화 天孫降臨神話 282
 천신족 天神族 13
 〈천전리 서석〉 〈川前里書石〉 116
 천존상 天尊像 415
 철광상 鐵鑛床 407
 철도자 鐵刀子 219
 철장 鐵場 409
 철정 鐵錠 7, 231, 311
 철제 농기구 鐵製 農器具 53, 77, 81
 청동기 靑銅器 224
 청소년 조직 靑少年 組織 119
 청제 菁堤 223
 초팔국 草八國 44
 초현대 招賢臺 416
 촌 村 244, 269
 촌락공유지 村落公有地 235
 〈촌락문서〉 〈村落文書〉 242
 촌주 村主 95, 240, 270, 271
 최치원 崔致遠 252, 258, 259, 312
 추고(수이코)여제 推古女帝 147
 추봉 推封 341, 348
 추진 鞫典 227
 축성 築城 74
 축자국조 筑紫國造 145
 출자형 出字形 52
 출자형입식 出字形立飾 82, 225
 치리 哆唎 282
 치양성 雉壤城 72
 치양(배천)전투 雉壤(白川)戰鬪 66
 7중나마 七重奈麻 164, 268
 〈칠지도명〉 〈七支刀銘〉 141
 침류왕 枕流王 411

[ㅋ]

카스트제(도) Caste制(度) 245, 261, 263
 콩 大豆 → 대두 大豆

[ㄷ]

타전 打典 227
 탁금성 濯金成 229
 탁기탄(국) 喙己呑(國) 145, 302, 345, 347, 349, 352, 395
 탁부 喙部 85, 88, 116, 247~250, 253
 탁순(국) 卓淳(國) 110, 302, 345, 349, 352, 354, 357, 375, 380, 382~385, 395
 탈지 脫知 112
 탈해(니사금) 脫解(尼師今) 28, 32, 141, 246, 2601
 탈해 신화 脫解 神話 2
 탐전 轄典 227
 태대각간 太太角干 163, 171
 태대형 太太兄 51
 태백산정 太白山頂 15
 태생 胎生 20
 태수 太守 200
 태왕 太王 250
 태왕호 太王號 3
 태종 太宗 23, 153
 태학 太學 97, 413
 《택리지》 《擇里志》 309
 토광목곽묘 土塋木槨墓 35
 토광묘 土塋墓 35, 64, 77
 토기 土器 216, 226
 토성 土城 216
 토우 土偶 10
 토지소유권 土地所有權 237
 토지제도 土地制度 234
 토착신앙 土着信仰 14
 토함산 吐含山 22, 63
 통형동기 筒形銅器 310

【ㅍ】

파사(니사금, 왕) 婆娑(尼師今,王) 18,
25, 31
파사산 波斯山 366
파사석탑 婆娑石塔 411
파천촌 巴川村 242
파형동기 巴形銅器 310
패강진진 溟江鎭典 267
평양성 平壤城 211
평인 平人 8, 260
포나모라 布那牟羅 349
포상팔국 浦上八國 45
포상팔국의 난 浦上八國의 亂 330
표암봉 瓢巖峰 16
표전 漂典 227
품계제 品階制 265
품석 品釋 109
품주 粟主 5, 6, 118, 174, 175, 179, 182,
241, 260
풍장 豐璋 153
피전 皮典 227
피타전 皮打典 227

【ㅎ】

하가라도 下加羅都 317
하간지 下干支 167
하내직(카와치노아타히) 河內直 358,
361, 362, 399
하서정 河西停 203
하서주 河西州 197
하서지촌 下西知村 20
하슬라성주 何瑟羅城主 71
하슬라인 何瑟羅人 75
하주 下州 113, 196, 197
하주정 下州停 196, 202, 203
하주행사대등 下州行使大等 196
하지 荷知 278, 337

하치리 下哆唎 302, 396
하호 下戶 239
한기(지)부 漢岐(祗)部 83, 247, 248,
258
한백겸 韓百謙 275
한산정 漢山停 203
한성 漢城 71
한지벌부 漢只伐部 83, 247
한진서 韓鎭書 275
한질허 邯軹許 135
한치운 韓致邇 275
함안 말산리 고분군 咸安 末山里 古墳群
357
합좌제도 合座制度 118, 183
해양세력 海洋勢力 26
행군 行軍 7, 208
행군조직 行軍組織 208
행군총관 行軍總管 208
향가 鄉歌 263
허루 許婁 88
허세신 許勢臣 283, 359
허황옥 許黃玉 316
허황후 許皇后 10
혁거세(거서간) 赫居世(居西干) 28,
139, 246, 253
혁거세 신화 赫居世 神話 2
현 縣 200
현령 縣令 200
형산 兄山 16
혜관 惠灌 152
혜광(에코우) 惠光 151
혜량 惠亮 105
혜문 惠文 128, 129
혜왕 惠王 148
혜일(에니치) 惠日 151
혜자 慧慈 147
혜재(에사이) 惠齋 151
혜충 慧聰 147
호계사 虎溪寺 411
호공 瓠公 21, 38

- 호명성 狐鳴城 72, 212
 호세 戶稅 242
 호조 戶調 242
 홍건 紅典 227
 화다 和多 353
 화랑 花郎 104
 화랑도 花郎徒 7, 114, 119, 261, 263
 《화랑세기》《花郎世記》 120
 화랑집단 花郎集團 262
 화려 華麗 49
 화백 和白 6, 89, 90, 118
 화백회의 和白會議 187~189, 191, 257
 화산 花山 16
 《화엄경》사경 《華嚴經》寫經 259
 화전 靴典 227
 환웅 桓雄 15
 황극(고구려)천황 皇極天皇 153
 황남대총 皇南大塚 73
 황산강(하) 黃山江(河) 313, 326
 황산진 黃山津 232
 황옥 黃玉 411
 횡천 橫川 128, 129
 횡혈식 석실분 橫穴式 石室墳 64, 292, 357
 후기 가야 後期伽耶 8, 9
 후기 가야 문화권 後期伽耶文化圈 343
 후기 가야사 後期伽耶史 304
 후기 가야연맹(체) 後期伽耶聯盟(體) 336, 338, 340, 356, 403
 후기 가야연맹 남부지역 後期伽倻聯盟南部地域 347
 훈족 Hun族 64
 흑의장창말보당 黑衣長槍末步幢 205
 흙명(킨메이)천황 欽明天皇 146
 흥덕왕 9년 교서 興德王九年敎書 259
 흥륜사 興輪寺 14, 103
 흥무대왕 興武大王 301

집필자

개요 이기동

I. 신라의 성립과 발전

1.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최광식
2. 성립과 발전 이우태

II. 신라의 융성

1. 나제동맹의 결성과 정치적 발전 이우태
2. 정치체제의 정비 이우태
3. 영토의 확장과 왕권강화 이우태

III. 신라의 대외관계

1. 중국과의 관계 신형식
2. 왜국과의 관계 김은숙

IV.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주보돈
2. 지방·군사제도 이인철
3. 경제 전덕재
4. 사회구조 이기동

V.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1. 가야사 연구의 개관 김태식
2. 가야사의 범위 김태식

VI. 가야의 성립

1. 가야의 풍토와 지리 김태식
2. 가야의 건국 설화 김태식
3. 가야 제국의 성립 김태식
4. 가야연맹의 형성 김태식

VII. 가야의 발전과 쇠퇴

1. 가야연맹의 발전 김태식
2. 가야연맹의 약화 김태식
3. 가야의 멸망 김태식

VIII. 가야의 대외관계

1. 백제 · 야마토와의 접근과 중개외교 김현구
2. 대백제관계의 심화와 부용외교 김현구
3. 백제 · 신라의 각축과 분열외교 김현구

IX. 가야인의 생활

1. 산업의 발달 심봉근
2. 종교와 풍속 심봉근

한 국 사

7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1997년 12월 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7년 12월 15일 발행 (No. 97-12-6-20)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